



대중필자의 대중화 바람직한가

에디터의 기획력, 전문가 비평정신 부재가 낳은 문제

정여울

블로그나 미니홈피를 비롯한 갖가지 '1인 미디어'를 서핑하다보면, 결코 '유명필자'가 아닌 평범한 대중들의 놀라운 글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는 요즘, 1인 미디어가 선사하는 깨달음은 무척 많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주인공'이 됨으로써 훌륭한 필자가 될 수 있다는 것, 1인 미디어를 매일 업데이트 하다보면 누구나 자신의 관심 영역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 1인 미디어가 확산될수록 대중들의 글쓰기 실력은 눈부시게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이다. 이 1인 미디어 열풍의 연장선상에 대중필자 붐이 자리하고 있다.

폭발적인 잠재력을 지닌 대중필자의 저서들은 생산자와 수용자의 경계를 뒤흔들며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전의 독서문화는 전문가적 지식이나 예술가의 글쓰기를 대중이 흡수하고 공감하는 수직적 구조에 가까웠다. 그러나 대중필자의 저작은 정보소통이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이쪽 모퉁이에서 저쪽 모퉁이'로 횡적으로 확산되는 구조, 즉 정보의 '주입'이 아닌 '소통'과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2000원으로 밥상 차리기》는 단순한 요리책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요리책을 넘어 소프트한 철학적 에세이로까지 다가온다. 그는 이 요리책을 통해 자신의 삶 자체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의 손맛을 보고 싶다는 열성팬들이 많아지면서 그는 정식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장기 백수 생활'을 청산하고!) 양념계장과 홍어회무침을 판매하기도 했다. 그는 단순히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주머니가 가볍더라도 임금님 부럽지 않은 상차림을 맛볼 수 있는 지혜를 전파한다. 사실 <남자보다 적금통장이 좋다>의 강서재 씨도, 《2000원으로 밥상차리기》의 김용환 씨도 처음에는 무척 '우울한 이유'로 통장을 만들고 요리법을 개발했다. 물론 경제적 이유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 책들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의 기쁨을 향유하는 방식을 창안했고, 삶의 행로 자체를 바꾸는 역동적 에너지를 발휘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고민 끝에 요리법과 재테크기술을 연마한 이들의 삶은 분명히 바뀌었고, 이들로 인해 유쾌한 삶의 방식이 '전염된' 독자들도 행복한 일상의 기술을 터득하게 되었다. 분명 대중필자 현상에는 기존의 '전문가집단'의 글쓰기에는 없는 제3의 축각이 꿈틀대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대중필자,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질문보다는 대중필자의 등장 자체가 기존의 독서문화에 대한 반감이나 저항의 산물이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할 것 같다. 대중필자의 부상은 우선, 그동안 전문가적 글쓰기의 태도와 수사학이 얼마나 대중을 지루하게 만들었는지, 얼마나 전문가/아마추어간의 높은 장벽을 느끼게 만들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전문가 집단 자체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대중필자 현상은 또한 그동안 개인의 사적 체험이 얼마나 소통 불가능의 영역에 있었는지, 그래서 고립된 개인은 타인의 체험의 공유에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를 일깨워 준다. 오히려 우리는 기존의 전문가 중심성/스타플레이어 위주의 출판 풍토에 타격을 돌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제 '전문성'의 정의 자체를 바꾸어야 할지도 모른다. 박사학위를 비롯한 전문가의 '자격증'이 전문성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분야에 대한 마니아적 열정과 집중, 그리고 그에 대한 날카로운 표현 능력(글쓰기/말하기)이아말로 전문가를 재정의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대중필자'라는 명명법은 또 다른 구별짓기에 불과하다. 대중필자는 이미 새로운 의미의 전문가들이며, 그들의 글쓰기의 재능은 이미 네티즌들이 검증하고 환호한 엄청난 객관성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대중필자 문화 양산의 진정한 문제점은 대중필자 저서의 '소통'과 '유통'의 문제에 있을 것이다. 출판계에서 대중필자를 환영하는 주요 원인은 이들의 참신성과 베스트셀러로서의 가능성, '대중의 눈높이'에 알맞다는 보편성에 집중된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더 많이 팔리는 책'이라는 화두로 압축된다. 즉 진정한 에디터십(editorship: 편집자의 기획력, 상상력, 윤리 등 편집자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관점과 태도)의 창조성과 다양성보다는 마케팅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가 5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필자가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출판계의 현실은 여전히 에디터십의 창조성과 기동력이 활발히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편집자들이 대중필자를 캐스팅하는 과정에 '마케팅'이 가장 큰 변수가 된다면, 제2, 제3의 귀여니와 나뭇잎들은 양산되겠지만, 새로운 기획의 장은 마련되지 않을 것이다. 벌써 귀여니와 나뭇잎의 아류작들이 속속 출판되고 있는 현상은 '대중필자 문화의 획일성'의 불길한 조짐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두 번째 문제는 대중필자 저서에 대한 '전문가들의 침묵'이다. 출판전문 사이트를 둘러보면, 대중필자에 대한 전문가의 비평이나 최소한의 언급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점점 전문가의 영역을 유쾌하게 '침범'하는 대중필자의 역동성에 비해, 전문가들은 분명히 자신의 영역에 문을 두드리는 새로운 필자들의 시도에 대해 무거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 분야로 점점 번져나가고 있는 대중필자의 글쓰기는 전문가와의 지적 교류와 상호 교감이 절실하다. 전문가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중요한 학술적 발견을 대중필자의 저술을 통해 발견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중필자도 전문가의 정확하고 엄밀한 고증을 통해 자신의 연구에 정교함과 신뢰성을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독자'의 입장에서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의 전문분야의 글쓰기는 문제적이다. 대중필자의 전문적 글쓰기는 쉽고 재미있는 반면 전문성과 정확성의 측면에서의 심을 품을 수 있으며, 전문가의 글쓰기는 정확하되 그 난해한 수사학과 전문용어의 홍수에 금세 지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시 에디터의 역동적인 조정자의 역할이 요청된다. 단순히 흥행 보증수표의 필자를 섭외하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중필자와 전문필자의 소통과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독자에게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급해야 하는 것이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흥미로운 수사학으로 무장한 대중필자, 엄격한 전문성과 지식의 카피레프트를 실천하는 지식인, 창조적인 기획과 능란한 조정능력을 지닌 에디터. 이 환상적 트라이앵글이 빚어내는 진정한 의미의 '공저'가 탄생할 때 대중필자와 전문가의 경계는 유쾌하게 교란될 것이다.

여기에 '에디터'를 단순히 출판의 '메신저'나 '매개자'의 역할로 가두지 않는 출판문화의 혁신이 뒤따라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대중필자 문화는 분명 독서의 경계를 넓혔다. 그러나 진정한 대중필자의 성공은 대중필자 스스로의 재능을 넘어 출판과정 전체에서 에디터의 기획력과 전문가의 비평정신이 행복한 동거를 이룰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주요  
주요

#### ● 이 글을 쓴 정여울은

자칭 '미디어 헌터'로 여러 잡지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20세기 초 풍류약식의 담론적 특성 연구> <비정치성의 정치성, 비역사성의 역사성-이우론>이 있으며, 공저로는 <이것은 에디메이션이 아니다> <book+ing, 책과 만나다> <국민 국가의 정치적 상상력>이 있다.